

금호, 2004년 SBR 시장 “어둡다”

2003년 당기순이익 75.2% 증가 ... SBR 가격이 경영실적 최대 관건

금호석유화학이 2003년 합성고무 시장의 호황으로 당기순이익 192억원을 기록하며 한껏 고무됐지만 2004년 경영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석유화학은 2월27일 공시를 통해 2003년 매출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1조1989억원, 영업이익은 6.8% 늘어난 7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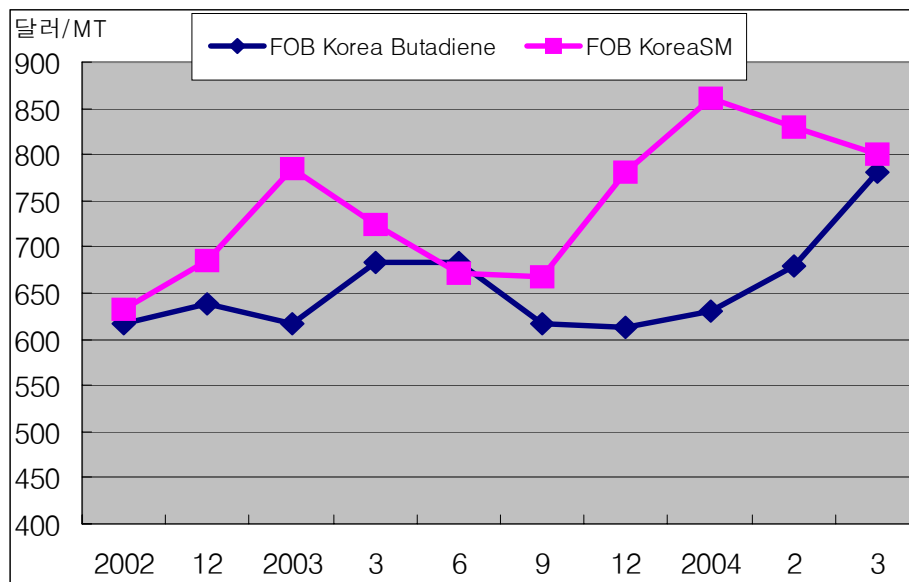
금호석유화학의 SBR를 비롯한 합성고무 매출액은 2003년 1-9월까지 3989억으로 전체 매출액 8483억의 47%를 차지했으며 수출액도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해 수출호조가 영업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SBR은 84%가 타이어용으로 사용되는데 국내판매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타이어 관련 경기의 호조로 수출량은 증가했다.

SBR의 수출증가는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용이 등을 이유로 중국현지에서 타이어 생산공장을 신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타이어 시장의 위축, 수입타이어와의 과당경쟁이 내수를 불안하게 하고 타이어의 수명연장 등이 합성고무 판매를 저조하게 해 2004년 SBR 시장은 2003년에 만큼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태이다.

Butadiene과 SM의 가격추이



원재료의 가격상승도 금호석유화학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SBR의 수출가격은 원재료인 Butadiene, SM 가격과 같은 흐름을 가지는데 수출량이 많은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판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 판매가격 및 타이어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BR 및 SBR 가격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SM과 SBR 생산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기업보다 SM 구매 가격 협상에서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SM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저널 2004/03/25>